

에이즈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

최근 발표된 국립보건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HIV 총 감염자수가 99년 9월말 현재 1,014명이었으며 금년에 138명이 추가 확인되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된 78명중 77명이 성 접촉에 의하여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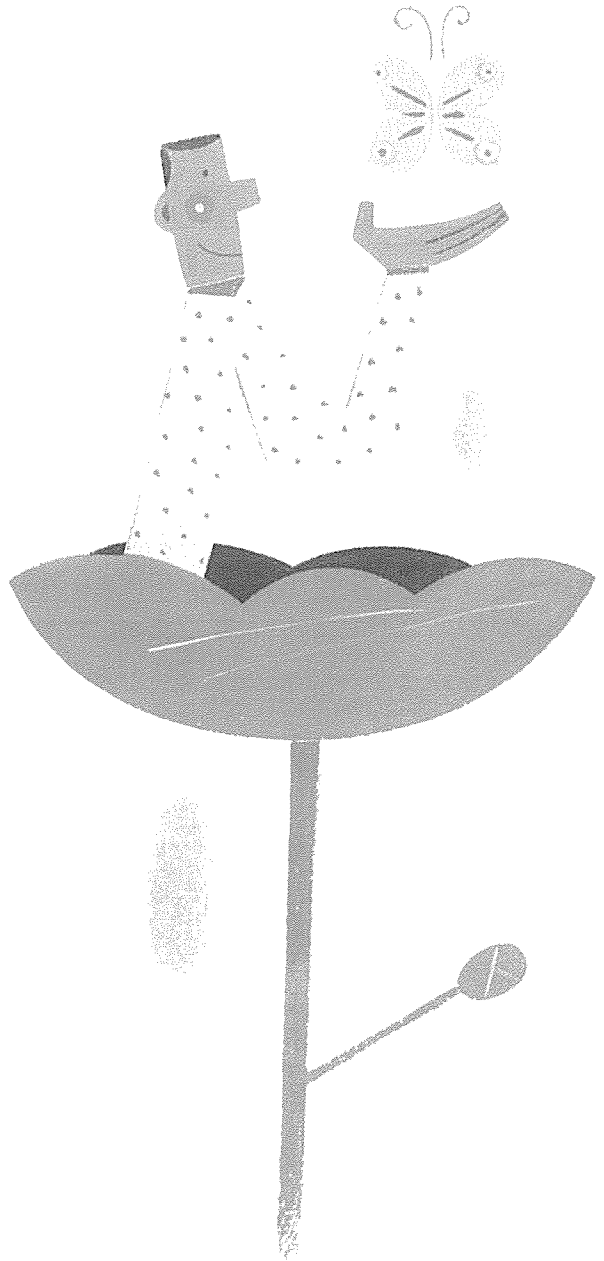
에이즈는 출산 시 감염 등 극히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성이 주요 매개가 된다. 성 매개 질환의 예방 방법은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며, 무분별한 성 접촉을 피하는 것이 에이즈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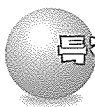
에이즈는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 나면 그렇게 공포스러운 질병은 아니다. 정상적인 생활만 유지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예방이 쉬운 질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치제가 없기 때문에 에이즈를 무서운 질병으로만 생각하고, 에이즈 감염 노이로제에 시달리는 경우도 흔하다.

몇 년 전 경남 진해에서 한 중년 남자가 잘 낫지 않는 피부 질환을 에이즈 증상으로 오인해 가족을 자동차에 태워 바닷가로 돌진해 지살한 사건은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에이즈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월의 건강길라잡이 주제를 "에이즈 예방"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에이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AIDS에 대한 이해

1. AIDS란?



AIDS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이며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진행성 증후군이다.

HIV에 감염된 사람이 AIDS환자로 진행되기까지 이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렴이나 유년기에 있었던 감염의 재발과 같은 질병에 대해 인체 내에서 스스로 저항하고 통제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이러한 면역 기능을 상실하여 질병으로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HIV는 뇌와 기타 기관까지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체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2. HIV는 AID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AIDS 환자들을 보면 몇 년 내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사망 원인은 단순히 HIV에 감염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HIV가 인체에 침투하여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감염으로 진행되어 약해진 면역 기능이 이를 막아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HIV는 AID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서 수혈이나 성적 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된다. HIV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결국에는 AIDS로 진행하게 된다. HIV에 감염된 사람들은 혈액·정액·질 분비물·모유 같은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다.

3. HIV 발생원인 아직 불리

최초에 인류에게 HIV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단지 아프리카 침팬지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HIV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 후 몇 주 안에 독감이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증상은 일주일 정도 유지된다. 이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열이 나거나 임파선이 붓고, 피로감을 느끼거나, 밤마다 땀에 흠뻑 젖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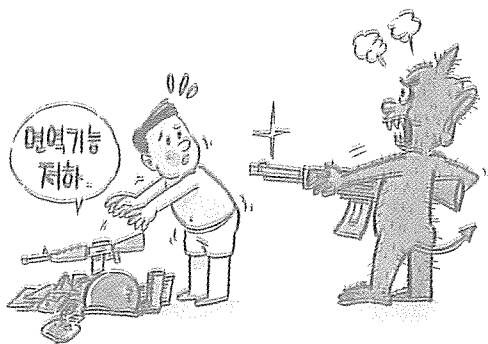
4. AIDS 환자 생존 기간 2년 정도

HIV에 감염된 지 10년 이내에

감염자의 절반 정도가 AIDS환자로 진행된다. HIV에 감염된 사람이 AIDS 증상을 보이게 되기까지의 기간을 AIDS의 '잠복기간'이라고 한다.

감염된 후 AIDS 증상을 보이기 전까지 감염자들은 건강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은 물론 남들에게도 건강하게 보인다. 따라서 감염자들은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

그러나 감염자는 수혈이나 성적 접촉을 통해 자신의 바이러스를 다



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HIV에 감염된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감염된 지 10년 사이에 AIDS환자로 진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12년 후 65%가 AIDS 환자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35%는 여전히 AIDS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HIV에 감염된 사람이 일단 AIDS로 진행되면, 건강한 사람일 경우 보통 저절로 회복되는 운동 능력이나 기억력 장애, 체중 감소,

설사, 인체 기능의 전반적인 약화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된다.

AIDS로 진단을 받고 훌륭한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의 생존기간은 2년 정도이다.

5. HIV 감염 검사

HIV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이 지나도 HIV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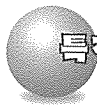
HIV의 감염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신체에 나타난 증상만으로 감염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혈액검사는 HIV에 대한 항체가 인체에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만일 혈액 내에 이 항체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혈액검사가 현재 바이러스를 발견하기 위한 주된 검사 방법이다.

HIV에 감염된 후 현재의 검사

방법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자신이 HIV에 노출되었다고 생각되면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삼가면서 검사를 받기까지 3개월 정도를 기다려야만 한다.

그 후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즉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HIV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다. [2]



특집 · 에이즈 예방(이달의 건강 길라잡이)

국내 AIDS 현황



1. AIDS 발생 현황

국립보건원 자료에 의하면, 1999년 9월말 현재 확인된

우리 나라의 HIV 총 감염자수는 1,014명(여자 1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1월부터 9월말까지 138명의 HIV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27명의 감염자가 환자로 전환되었고 33명이 사망하였다.

최근 감염자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과거에 비해 개인 건강관리 차원의 자진 검사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HIV 감염자의 발견이

우리나라 에이즈 발생현황

1999년 9월말 기준(단위 : 명)

구 분	계	'85~'92	'93	'94	'95	'96	'97	'98	'99
총 감염자 (여자)	1,014 (132)	245 (27)	78 (7)	90 (12)	108 (19)	102 (12)	124 (17)	129 (18)	138 (20)
감염자 중 환자	158	10	6	11	14	22	33	35	27

* 사망자 : 224명(자료 : 국립보건원 방역과, 1999. 10.)

증가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AIDS 감염 경로

1999년에 감염 경로가 확인된 78명 중 77명이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었으며 1명은 어머니로부터 아기가 수직 감염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기존에는 AIDS는 동성애자 등 특수한 사람들만이 걸리

는 질병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 밝혀진 AIDS의 감염 경로는 대부분 남녀간의 성 관계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감염 경로가 동성연애 222명, 국내 이성 367명, 국외 이성 254명 등으로 성 접촉을 통한 경우가 8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혈 21명, 혈액 제제 17명, 수직 감염 2명 등이다.

그러나 동성애자간의 성 관계로

감염요인별 현황

(단위 : 명)

계	성 접 촉 수			수 혈		혈액 제제	수직 감염	약물 주사	기타	역학 조사 중
	국외 여성	국내 여성	동성 연애	국내	국외					
1,014	254	367	222	10	11	17	2	-	74	57

자료 : 국립보건원 방역과, 1999. 10.

HIV에 감염되는 주된 경로

- ☞ HIV 감염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 ☞ HIV 감염자와 주사기나 바늘을 같이 사용한 경우
- ☞ HIV에 감염된 산모의 임신이나 분만

인한 감염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수혈로 인한 감염은 거의 드물다. 그러므로 AIDS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다.

3. AIDS 전염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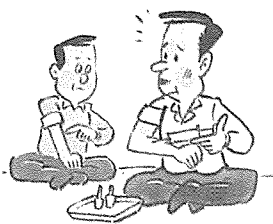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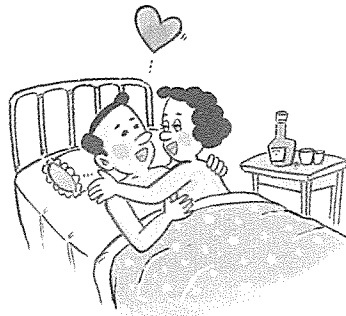
AIDS는 HIV 감염자와의 성적 접촉이나 혈액에 의하여 전염되어 발생한다.

1985년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혈액이나 혈액을 구성하는 일부 물질 등의 수혈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AID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우연한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으며, 물이나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여성이 성 관계를 통해 남성을 감염시키는 경우보다 감염된 남성이 성 관계를 통해 여성을 감염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남녀간의 성 관계를 통한

새로운 AIDS환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성간의 성 관계를 통한 AIDS감염의 비율은 서서히 그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많은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남녀간의 성 관계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들 나라에서는 AIDS환자의 성 비율이 거의 같다.



감염된 남성의 정액 안에 HIV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남성과의 구강이나 질, 항문을 통한 섹스로 인해 여성이 감염될 수 있다. 성 관계를 갖는 동안 감염된 남성의 정액이 입이나 질, 항문의 작은 상처나 눈물선 혹은 점액선의 세포를 통해 여성

에게로 유입될 수 있는데 이것이 여성을 감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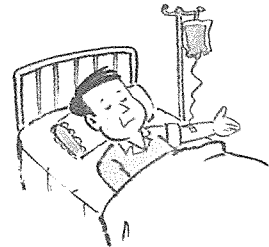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감염된 여성과의 성 관계를 통해 여성의 혈액이나 질 분비물에 노출됨으로써 HIV에 감염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가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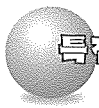
어린이와 신생아의 감염 경로

- ☞ 분만시에 감염된 어머니의 질분비물이나 혈액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거나 수유
- ☞ HIV에 감염된 사람에 의한 성폭행
- ☞ 감염된 혈액의 수혈

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임신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아이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 어린이들은 대부분 HIV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지 못해 AIDS로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72



AIDS에 대한 궁금증 풀기



1. 에이즈에 감염되었음을 나타내는 첫 증상은?

에이즈에 감염되면 수주 후에 독감과 비슷한 증상, 다시 말해서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전신이 쑤시고, 나른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임파선이 붓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대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1~6주 후에 저절로 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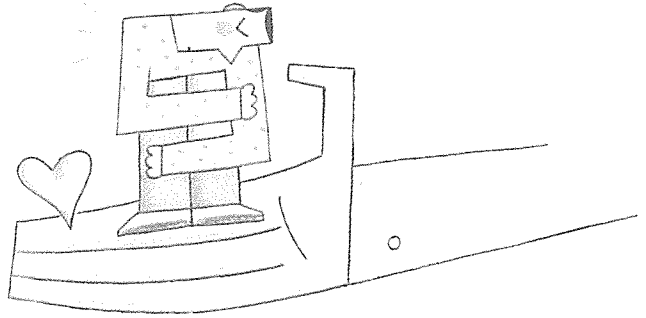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증세는 모든 감염자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약 30~50%의 감염자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지침으로 삼기는 어렵다.

2. 감염이 의심될 때 즉시 검사를 하면 알 수 있나?

에이즈에 감염되어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기까지는 6주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감염 후 적어도 6주가 지나야 양성 반응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염자에서는 6주 후부터 항체 형성을 보이기 시작하여 대부분 3개월까지는 항체 양성을 보이며, 극히 드문 예에서는 수년이 지난 후에 항체 양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6주 후, 3개월 후, 6개월 후에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원한



다면, 1년 후에 검사를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3. 에이즈에 감염되면 어떠한 임상 경과를 거치게 되나?

에이즈에 감염되면 일부 감염자에서 수주 후에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느끼지만, 대개는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수년간 아무런 증상도 없이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감염자에서는 이 시기에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임파선이 붓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면역기능은 계속 감소하게 된다.

감염 후 대개 8~10년이 지나면 에이즈로 이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에이즈로 빠지기 바로 직전, 다시 말해서 수개월 또는 1~2년 전에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밥맛이 없고, 피곤하고, 잠잘 때 심하게 땀을 흘리거나, 이유 없이 열이 나고, 설사가 계속 되면서, 심할 경우에는 체중이 빠지게 된다.

또한 여러 가지 피부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글씨 쓰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에이즈로 이행하면 대개는 2~3년 후에 위중한 감염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4. 감염자와 성 접촉을 한 번 가졌을 때 전염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자와 한번 성 접촉을 가졌을 때 전염될 확률은 0.1~1% 정도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보다 전염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만약 폭력에 의해서 성 접촉을 갖게 된 경우에는 전염률이 1%까지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남녀의 전염률 차이는 아마도 해부학적인 구조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마약중독자가 동료 마약중독자가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주사기를 한번 함께 사용하였을 때 전



▲ 에이즈의 증상

염될 확률은 0.5~1.0%이다. 그리고 감염된 임신부가 출산 시 신생아가 감염될 확률은 15~25%이며, 병원에서 오염된 혈액을 수혈 받았을 때 감염될 확률은 거의 100%다.

5. 키스나 피부접촉을 통해서도 전염되나?

감염자의 모든 체액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자의 모든 체액이 전염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감염자의 혈액, 정액, 질액, 침, 눈물, 땀, 모유, 뇌척수액 등에 모두 에이즈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 혈액, 정액, 질액, 모유, 뇌척수액 만이 전염시킬 만한 충분한 양의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따라서 키스를 통해서나, 악수, 포옹과 같은 피부접촉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지 않고, 설사 체액이 피부에 묻었다 하더라도 전염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감염자와 함께 식사를 한거나, 목욕탕, 변기를 같이 쓰고, 나아가서 한집에서 함께 생활한다 하더라도 결코 전염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한 키스나 감염자의 피부 병변에 접촉하는 것은 삼가야 하겠다.

6. 에이즈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에이즈 감염자란 몸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상태이다. 가끔 에이즈 보균자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용어라 할 수 없다.

그에 반해서 에이즈 환자는 감염 후 면역 체계가 파괴되어 2차적인 감염증이나 악성종양이 나타난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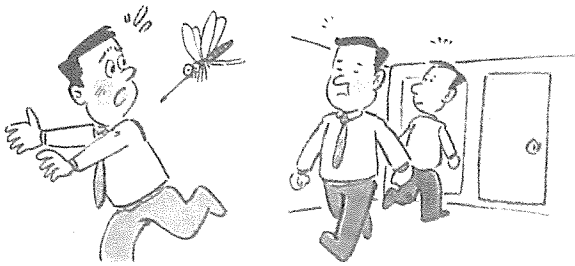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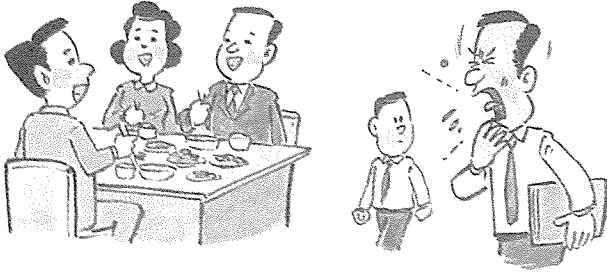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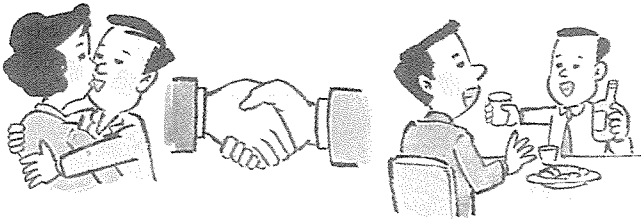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감염 후 8~10년이 지나면 에이즈로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성 접촉에 의해서 전염된 경우이고, 수혈로 인해 전염된 경우에는 이 기간

이 더 짧아서 3~4년 후에 에이즈로 이행한다.

에이즈 환자에서는 정상인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곰팡이, 바이러스, 원충, 기생충 등에 의해 폐렴, 뇌염, 장염, 망막염 등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결핵, 특히 치료 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이 잘 발생한다.

주폐포자충에 의한 폐렴, 거대세포바이러스 폐렴과 세균성 폐렴, 칸디다구내염, 식도염, 크립토코커스 뇌막염, 톡소플라즈마 뇌염, 헤르페스바이러스, 직장궤양 등 여러 가지 2차성 감염, 즉 기회감염성 질환이 합병되고 또한 카포시육종과 같은 피부암, 임파선암과 같은 악성종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로 침입해서 두통, 경부강직 등 뇌막염 증상은 물론 지능 저하, 우울증, 경련, 진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후기에는 기억장애, 전신 쇠약이 발생하여 환자를 백치 상태로 만들어 직장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도 전혀 못하게 한다.



주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에이즈 치료제인 에이지티(AZT)를 지정 치료 기관을 통해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으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비도 보조해 주고 있다.

HIV 감염자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져 있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치료를 받으록 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9. 모기에 의해서도 감염되는지?

한동안 모기에 의해서 에이즈가 감염될 수도 있다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사건의 발단은 미국 플로리다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에이즈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마을 주변에 많은 모기가 서식함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기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결국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동성애자 집단임이 밝혀지면서 모기에 의한 전파 가능성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다.

사실 모기가 흡입하는 혈액의 양이 매우 적고, 따라서 흡입한 에이즈 바이러스의 양도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모기 체내에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은 없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엔 모기에 물리는 사람의 수가 무척 많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20~49세의 성적 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이고, 어린이나 노년층에는 거의 환자가 없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72]

▲ 키스나 악수, 모기 등에 의해서는 AIDS가 전염되지 않는다.

7. 콘돔 사용만으로 예방이 가능한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예방법은 역시 콘돔 사용이다. 그러나 보고에 따르면 콘돔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가 있었으며, 따라서 콘돔 그 자체도 100% 에이즈를 예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에이즈는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 나면 그렇게 공포스러운 질병도 아니고,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만 유지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예방이 쉬운 질병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무분별한 성 접촉이나 마약 사용과 같은 정상 궤도를 벗어난 생활을 피하고, 오로지 건전한 성도덕 및 윤리관을 확립하는 길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홍보와 교육은 물론 상담도 시행하고 있으며 감염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8.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되면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건 당국에서는 감염자로 밝혀지면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역학 조사를 위한 면담을 실시하고, 그 후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진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감염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치료 기관을 소개해



AIDS의 예방 방법

1. 부득이한 성 접촉을 할 때



성관계로 인한 HI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HIV에 감염되었는지 걸로 보아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대상과는 성 접촉을 피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콘돔은 HIV나 다른 병원균이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콘돔 사용이 HIV감염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은 콘돔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성용 콘돔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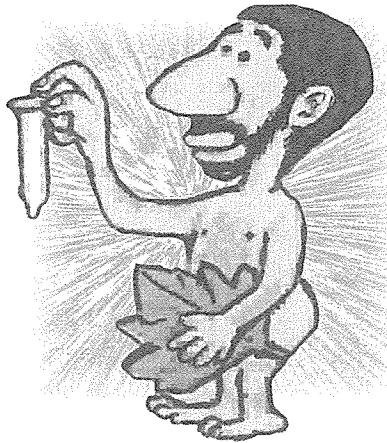
AIDS는 쉽게 전염되지 않는 HIV에 의해 유발된다. 따라서 음식, 전화기, 접시, 옷, 욕실, 수영장 등은 함께 사용해도 무방하다. 같은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HIV에 감염되지 않는다.

다만 감염자의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와 같은 체액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야 한다. 만일 체액에서 혈액이 보이면, 청소할 때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엽질러진 것을 청소하거나 잘라

콘돔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 콘돔은 태양이 비치지 않는 건조하고 차가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 사용 전에 콘돔에 결함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 사용할 때마다 새 것을 사용해야 한다.
- ☞ 착용 전에 완전히 퍼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 수용성 윤활제를 이용하여 콘돔을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 ☞ 정액이 모일 수 있도록 끝부분을 충분히 남겨 두어야 한다.
- ☞ 질에서 성기를 빼낼 때 콘돔이 빠지지 않도록 콘돔의 입구를 잘 잡아야 한다.
- ☞ 성 관계를 갖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낼 때 가능하면 비닐 또는 플라스틱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그 주변에는 염소 표백제 1/4컵과 물 한 사발을 혼합한 용액을 도포 하여 완전히 소독해 주어야 한다.

이 작업을 마치면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 낸다. 또한 배설물을 통해서 다른 병원균들이 전염될 수 있으므로 손으로 이들을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된 체액을 다룰 때

의료계 종사자들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정액, 질 분비물, 혈액 등), 조직 세포 등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계 종사자들이 감염된 체액과 접촉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 예방책을 지켜야 한다.

즉 감염의 소지가 있는 체액에 피부나 점막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무장갑, 고글, 가운과 같은 예방적인 준비물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손을 깨끗이 씻는 다던가, 주사 후에 바늘을 다시 사용하지 않거나, 주사 바늘과 다른 날카로운 도구들을 회수하여 처리함으로써 자신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또한 환자들이 의료계 종사자의 체액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땀이나 눈물, 침, 소변, 대변과 같은 분비물에는 혈액이 섞여 있지 않으면 HIV에 감염되지는 않는다. 72